

조선족 이민사

1. 조선족의 의미

조선족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 거주하는 230여만 명의 한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조선족이란 명칭은 1951년 중국에서 각 소수민족의 명칭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국에 건너가 살던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부른 명칭이다.

중국은 한족이 전체인구의 92%를 차지하고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8%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은 이중 13번째로 큰 소수민족으로, 독특한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한 채 만주지역 동북3성인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동포들이다.



만주와 간도지방 - 조선일보 제공

2. 중국으로의 이주

가. 19세기 중엽 기근피해 이주

중국으로의 이주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지만,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자연재해와 조선조의 부패통치를 피해 함경도 지방의 농민들이 압록강을 건너 간도에 살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초기 이주민들이 비농사를 짓기 위해
만주 벌판에다 논을 만들었다



1900년대 초 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간도 지역 이주
한인들의 모습 - 조선일보 제공

나. 한일합방 이후 이주

이후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기 시작한 1910년 한일합방 이후부터 대량 이민이 발생하였다. 이전에는 간도와 그 주변의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이후에는 간도 주변을 벗어나 하얼빈과 몽골 자치주까지 이주하였다. 강제합병이후 일본이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탈당하고 꺾박당한 농민들과 잔혹한 무단통치로 인해 정치적인 꺾박을 받은 많은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1910년에는 109,500명이 이주해갔고 1930년대에는 60만 명이나 이주해갔다.



1930년대 조선족의 모습



1930년대 조선족의 모습

다. 강제이주 정책으로 이주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국 동북지역을 중국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와 식량기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조선인들을 1년에 1만 호씩 계획적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단농장을 이루어 식량을 생산 하도록 했다.

그와 같은 1930년대 일본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인하여 조선인의 수는 빠르게 증가해 1940년대에는 145만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1945년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조선이 독립하게 되자 조선으로의 귀화현상이 발생하였다. 조선인의 40%에 해당하는 약 70만명이 해방 직후 만주로부터 조선으로 귀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조선족의 삶

가. 민족성을 유지하며 살아옴

중국에서 집단 거주지를 이루어 모여 살았던 조선족들은 민족의 언어와 전통을 유지하며 근면하게 살았다. 그리고 적응력도 빨라서 살고 있는 국가에 헌신하며 다른 민족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 이로 인해 1939년, 모택동은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이고 중화민족의 일원이며 중국의 국민이라고 선언하였다.

나. 항일운동 전개

1910년대에는 연변 지역을 중심으로 반일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의 수탈과 폭력으로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어렵게 되자 반일지사들이 근거지를 만주 땅으로 옮겨갔다. 그들은 만주 땅에 이미 형성된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신식 학교를 세워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 반일 단체를 조직하는 등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항일 무장독립군들

1909년 간도협약으로 일본의 조선인들에 대한 탄압이 더 심해지자, 조선인들은 일본을 상대로한 무장투쟁에 돌입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여 조선인들의 반일 투지를 크게 자극하였다.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대승리로 항일 무장투쟁은 최고봉을 이루

었다. 하지만 이후 공산주의 이념으로 인한 내부 당파 싸움과 일본의 조선인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항일 투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조선족들이 점점 많아져,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1945년 일본이 항복할때까지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다. 중국에 헌신하는 조선족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중국에서는 1945~1949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발생했다. 이때 조선족은 토지개혁을 비롯한 소외 계층과 소수민족을 지지하는 모택동 노선을 지지하며 공산당을 도와 해방전쟁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56개의 민족 중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신중국을 건설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연변을 위시하여 동북 3성 전역에서 해방전쟁에 참가한 조선족들의 수는 62,942명이나 되었다.

그러한 공로로 조선족은 이주 민족이면서도 토지를 수여받고 모든 분야에서 중국 국민으로 자격을 부여 받았고 신중국을 건설하는 핵심민족으로 인정되었다. 1952년 9월에는 연변조선족 자치구를 설립하고 1955년에는 자치주로 개칭되어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조선족’으로 승인받는 민족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인정 받음과 동시에 중국 공산당을 따라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동족상잔의 아픔과 국토의 분단, 민족의 분열이라는 비극도 감수해야만 했다. 중국은 남한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북침한 것으로 알고 중국 인민 해방군과 함께 2만여 명의 조선족 병사를 데리고 북한을 도우러 내려왔던 것이다.

1958년부터 전개된 중국에서의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개인소유가 부정되면서 근로의욕 상실로 생산량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이시기 식량부족으로 아사상태에 빠진 조선족들은 북한으로 대거 이주하기도 했다.

1968년 본격적으로 전개된 문화대혁명은 낡은 사상, 문화, 풍속, 관습을 타파하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민족 지도자, 지식인등을 탄압하고 숙청하였다. 이 시기 대한족주의가 대두되어 기타 민족의 존재가 부인되고 민족자치지역이 취소되고 모든 민족을 한족화하는 방향으로 내몰았다. 민족교육과 민족언어, 풍속 습관이 완전히 무시당하였다. 이때 많은 조선족들이 외국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박해를 당하였다. 특히 이 시기 연변 자치주가 모택동에 대한 충성이 약하고 중국 공산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같은 조선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라. 자녀교육에 열심을 쏟음

조선족은 이주 초기 어려운 생활환경에서도 자녀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1914년 연변지역의 연길현에만 조선인 서당이 116개소가 있었고 이중 신식 서당이 34개소이고, 연변지역에 신식의 사립학교가 1911년에는 19개소였고, 1916년에는 156개소였다고 한다. 1990년 인구센서스 통계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인구 문맹률은 중국 전체

22.2%, 소수민족 30.8%, 한족 21.5%에 비교해서 조선족의 문맹률은 7%밖에 되지 않았다.

조선족이 다민족사회에서도 민족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족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민족평등주의 정책이 중요했지만 조선족이 민족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그 안에서 공동체적 사회, 경제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4. 조선족의 문제

가. 한중수교 이후 정체성에 혼란을 가짐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재외동포들은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조선족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되는 한국을 찾았다.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온 조선족으로서, 한국사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취업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1998년에는 한국 정부에서 조선족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정착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이에 조선족은 중국의 국민이고 그러한 재외동포법은 내정간섭이라며, 조선족들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나. 한국에서의 조선족의 어려운 삶

조선족들은 한국과의 관계속에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만 했다. 우선은 폐쇄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던 조선족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정세를 잘 알지 못했던 조선족들이 사기를 당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 이런 과정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동을 갖게 되었다.

언어가 통하는 한국에서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실업자들과 저학력자들 중심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09년 한국에 있는 조선족의 수는 36만명 정도 되는데, 이중 불법체류자는 2만7천여명이나 되었다. 조선족들은 한국인을 상대로 전화사기 등에도 이용돼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국에서의 조선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민족의 자치주까지 배정받아 살게 되었지만, 1980년대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농업중심의 조선족들의 삶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통적으로 벼농사에 종사했던 조선족들은 산업중심의 사회에서 실업하게 되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대도시와 한국과 국외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식인들이 대거 빠져나가 민족교육이 위축되고 민족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율까지 저하되어 2000년에는 연변의 자치주에서의 조선족의 비율이 36%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다. 조선족을 향한 희망

조선족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할 줄 아는 조선족들은 한중 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통로로 상당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족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칠고 숨가쁜 세월을 살아온 민족이고 목숨을 바쳐 일제와 싸웠던 투사의 후손들이다. 그들의 슬픈 역사를 보듬고 함께 할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